



|              |   |
|--------------|---|
| 제목           | 15세기 에스파냐와 오스만의 '다문화' 정책 - 강요된 '동화'와 제한된 자치 |
| 발행언어         | 한국어   |
| 발행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다문화와 인간 제4권 제2호)           |
| 발행일          | 2015. 12.                                   |
| 저자           | 김필영   |
| 출판도시         | 대구  |
| 페이지수         | 55-88                                       |
| ISBN 또는 ISSN | 2287-3287                                   |

### 내용 요약

이 논문은 15세기 에스파냐와 오스만제국의 다문화 정책을 분석한 논문이다. 15세기의 에스파냐와 오스만제국은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과 유대인 등이 함께 살았던 다문화사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에스파냐는 비주류였던 유대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 반면, 오스만제국은 비주류인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치를 허용하는 다문화 정책을 펼쳤다.

저자는 15세기 에스파냐의 다문화 정책이 동화를 표방했지만 실은 그 동화는 강요된 것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배경에는 다수 원주민인 기독교인들이 소수 이방인인 유대인에 대해 가진 반감이 놓여있다. 기독교인들은 에스파냐의 왕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적대감이 1391년 유대인 대학살 사건으로 표출되었고 반유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에스파냐에 계속 살기 위해서 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신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지위가 높아지자 구기독교인들은 그전보다 더 강한 위협과 적대감을 느끼면서 신기독교인들을 인종주의적으로 차별하고 박해했다. 반면에 오스만제국은 기존 이슬람세계에서 시행되었던 담미 제도를 계승한 밀레트 제도를 펼쳤다. 종교적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관용정책인 담미 제도를 계승한 밀레트 제도는 비무슬림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자치를 허용했다. 저자는 오스만의 다문화 정책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지만, 15세기 에스파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다고 주장한다.